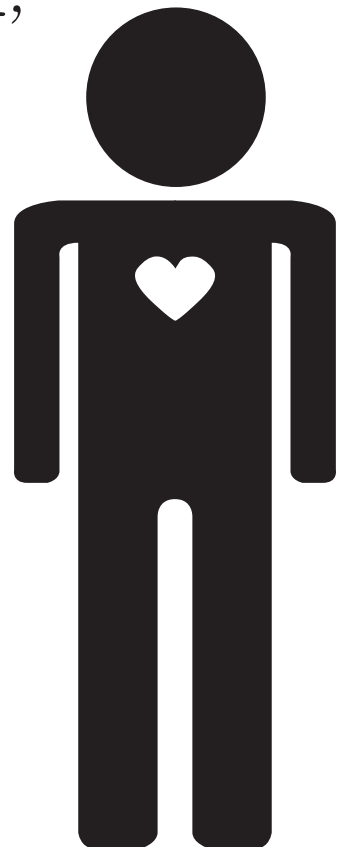


퀴어 가이드 vol.7

QUEERGUIDE /2007

고려대학교 性소수자모임사람과사람이 만드는,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고픈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퀴어 가이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중에서

퀴어가이드 7호

2007년 12월 10일 1판 1쇄 찍음

만든이 그레이, 느그집공주, 다시작, 더실리트리,
땅콩, 레인 어게인, 루이, 루크, 번지,
엘제이, 엘큐, 은빛까마귀, 주페이스,
프란츠, 프렌들리, 프로작, 휘버

펴낸이 퀴어가이드 편집위원회

엮은이 주페이스

표지 디자인 엘큐

도움주신 분들 엔, 육성필 QPR지살예방연구소 소장, '사람과사람'의 사람들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사람과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사람과사람 ☎ 136-701

이메일 queerkorea@gmail.com

웹사이트 www.queerkorea.org

퀴어가이드 7호의 저작권 및 판권은 사람과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 일부 또는 전체를 허가 없이 가공하거나 실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어가이드 웹사이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퀴어가이드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퀴어가이드 7호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람과사람 졸업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UEERGUIDE VOLUME 7. Copyright © 2007 by People to Peopl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People to Peopl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queerkorea.org or e-mail us at queerkorea@gmail.com

Korea University LGBT Club PEOPLE TO PEOPLE.

Saram gwa Saram, Student Union Bldg,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세계인권선언은 차별 관련 조항에서 세세한 항목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별 금지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개념을 늘려가며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조항을 배제하거나 추려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2007년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위원장
데 알바(De Alba)대사,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과의
인터뷰 중에서

오늘, 본관 앞을 지나면서 바라본 하늘이 너무나 맑아서, 마음이 시렸습
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알
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서로에게 가 닿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자유는 주어
지지 않았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뒤 돌아 서 있는 사람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사람 대표 LQ입니다.

처음 얼떨결에 대표가 된 뒤로, 쿼어가이드에 여는 글을 쓸 때 즈이 면
무언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지 않을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여는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어쩌면 원
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디로 향해야 하
는지도 모르는 채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시린 동안에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정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었기 때문이겠지요. 돌이켜보면, 제 대학생활은
온통 사람과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
지만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마음속에 쌓여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는 시간의 무게……사람과사람에서 제가 얻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 같습니
다. 네.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구분되지 않는, 복마전 같은 세상이지요.

한편에선 ‘동성애자들을 돌로 때려죽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묵인하는 (혹은, 조장하는) 이름뿐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세상은 아무래도 눈 먼 것 같습니다. 제게는 사람과사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 아무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라져도 좋았을 익명의 제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이 세상은 대체 어찌 되려는지요.

이런 세상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오해의 불가능성, 아무리 노래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러나 아직까지 이해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주 작은 가능성,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언젠가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말없이 전해질 수 있겠지요. 언젠가는. 무지개 너머, 저 어딘가에.

일곱 번째 퀴어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고픈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퀴어가이드

> 별의별 이야기

- 14 차별금지법이 나오기까지
- 19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소수자가 차별 받아도 마땅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까?
- 18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 소개

> 칠공주, 세계를 드잡다

- 30 두 개의 얼굴이 필요치 않았던 도시
- 34 싱가포르의 은밀한 매력
- 38 유럽에서 동성애 사는(?) 사람들
- 42 돈과 함께 굴러가는 게이 천국, 샌프란시스코

> 깨고 알리고 밝히고 커밍아웃

- 22 내 친구는 레즈비언이다
- 26 LARE: 내 친구는 레즈비언이다
- 48 이해: 나의 커밍아웃

> 모르는 게 늘 자량은 아니야

- 08 숫자로 알아보는 세상
- 09 일반적이고 이반적인 LGBT 용어사전 2007
- 53 인터뷰: "네가 누구든 정말 괜찮아"

> 삶과 사람, 사랑과 사람, 사람과 사람

- 64 학교 모임에 대한 편견을 버려!
- 70 실리 트리 집사님의 프라이드 신앙 간증
- 77 나의 관심일촌 사람과사람

- 04 여는 글
- 78 닫는 글: 무지개나라에서 태어나셨군요

사람과사람 퀴어가이드 7호

2008학년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입학 정원에 따른 추정 동성애자 학생 수.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비율은 1~10%로 추정되며, 중간값인 5%로 계산했을 경우.

268

20/13

차별금지법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차별 금지 항목 수와 법제처로 넘긴 법안의 항목 수. 법무부는 단지 예시 항목이라 하고 있으나, 삭제를 원하는 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였다는 것은 문제임.

29개 대학 중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부름)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의 수. 특히 의과대학 등 과학관련 학과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 연명하였음. 동성애가 확산된다든가 하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음.

211

76

2006년 미국에서 일어난 성적 지향 관련 증오 범죄 중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비율, 76%.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2%였음.

숫자로 알아보는 세상



일반적이고 이반적인 LGBT 용어사전 2007

워은이
Prozac

같이 한 사람들
느그집공주, 그레이, 번지, 프렌들리

2002년 3월, 사람과사람은 타 단체와 함께, 당시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국어사전,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조사,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후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전은 발행 시기 등의 이유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과사람이 직접 용어사전을 펴 볼까 합니다. 아직 내용은 적지만,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반적이고 이반적인 LGBT 용어사전'을 만나보세요!

(실린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검정색 역삼각형(-色 逆三角形) ㉮ 나치 히틀러 시대에 수용소에 갇힌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성매매 여성들에게 달았던 표식. 현재는 레즈비언의 자긍심과 여성들의 자매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게이(Gay) ㉮ 동성애자. 서구권에서는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나, 한국에서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만을 가리킨다.

* 간혹 트랜스젠더와 게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이는 자신의 성을 인정하고, 단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므로 이는 서로 다른 말이다.

계간법(鷄姦法) ㉮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 군형법 제92조.

* 이 조항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성소수자 차별적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성추행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간이라는 표현이 닭의 성행위에 빗댄 비하적인 표현이므로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면 따귀를 맞아야 한다.

동성애자(同性愛者) ㉸ 동성에게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게이, 레즈비언.

* 동성연애자는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 쓰이지만 동성연애자라는 것은 동성의 연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사람의 성적 지향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성애, 이성애자에 대응되는 용어가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비정상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용어는 비하적인 표현이므로,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면 따귀를 맞아야 한다.

레즈비언(Lesbian) ㉸ 여성 동성애자.

무성애자(無性愛者) ㉸ 성과 동성 모두에게 성적 호감을 못 느끼는 사람. 에이섹슈얼(Asexual).

무지개 ㉸ 성소수자의 상징. 주로 빨주노초파보의 여섯 색깔로 표현되며,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분홍색 역삼각형(粉紅色 逆三角形) ㉸ 나치 히틀러 시대에 수용소에 갇힌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달았던 표식. 핑크 트라이앵글(Pink Triangle).

성병(性病) ㉸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STD(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성적 지향(性的指向) ㉸ 개인이 좋아하는 성.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

성정체성(性正體性) ㉸ 자신이 인정하는 자신의 성.

아웃팅(Outing) ㉸ 자신의 성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밝혀지는 것.

양성애자(兩性愛者) ㉸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바이섹슈얼(Bisexual).

이성애자(異性愛者) ㉮ 이성에게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헤테로섹슈얼(Hetero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자각하고 있는 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성전환자(性轉換者).

* 성전환 수술을 통해 자신의 성을 바꾼 사람이라는 뜻으로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이 두 용어의 의미 정립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커밍아웃(Coming Out) ㉮ 자신의 성적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것.

퀘스처닝(Questioning) ㉮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

퀴어(Queer) ㉮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표현 중 하나.

* 본래 기묘하다, 요상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음.

크로스 드레서(Cross Dresser) ㉮ 자신의 생물학 성과 반대되는 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 성적 지향이나 성적체성과는 무관하며, 여기에서의 만족감이란 성적 만족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와 크로스 드레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같은 거 아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스스로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성과 생물학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반면, 크로스 드레서는 자각한 것과 생물학적인 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트랜스젠더가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에 일반적으로 권해지는 옷을 착용하는 것을 크로스 드레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호모포비아(Homophobia) ㉮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

* 동성애 혐오증이란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막연한 두려움, 혐오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질병이고 전염병, 정신병이라는 생각,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대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증, 호모포비아라고 한다.

동성애혐오증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영향과 그동안 받은 교육 등으로 인해 동성애혐오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동성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혐오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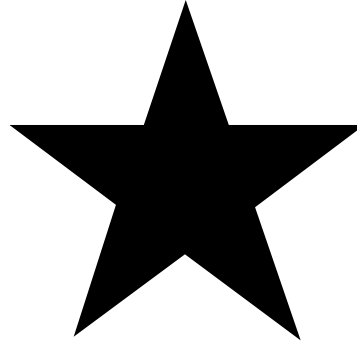
동성애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호모포비아일 가능성이 높다. 과도하게, 필요이상으로 남성성(남성 동성애자인 경우), 여성성(여성 동성애자인 경우)에 집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필요이상의 거부반응, 레즈비언, 게이라는 단어에 대한 심한 거부감(예를 들면 난 레즈비언이 아니라 그냥 단지 여자를 좋아할 뿐이죠.)은 동성애 혐오증의 한 예일 수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HIV 감염에 의해 생기는 병. 에이즈.

*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다양한 감염 경로에 의해 발병한다. 초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동성애자만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천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한다.

 사람

별의별 이야기



나날이 정보 기술이 발전하는 지금, 과연 우리의 인권도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사회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차별금지법. 오랫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였던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바뀌어서 현재 문제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오기까지

U

1. 차별금지법을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선천적, 후천적인 차별은 인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최고법은 원칙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불합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차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차별이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원리와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 그리고 적절한 수단인지 라는 세 가지 복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견해가 제일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네요. 법학이 다 그렇죠, 뭐.

비록 합리적인 차별이 어느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는 없습디만,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을 했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차별금지법에 적시된 항목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별 행위가 드러나고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달리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 놓는다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지 확정을 짓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차이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법 전에 헌법의 차별금지 이념을 구체화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들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권위 법은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권고안에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과 유사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도록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확보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의 차별금지법은 강제력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3. 차별금지법의 변천

차별금지법에는 소위 3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법무부의 10월 입법예고안, 그리고 11월 2일에 법제처로 넘어간 법안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권고안의 특징은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고, 차별 구제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제도, 차별시정기구의 제한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권 및 개별 소송을 도입함으로써 피해 구제수단의 확보를 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는 차별 피해 소송 당사자가 차별 사실 및 그 부당성까지 입증해야 했으나 권고안에서는 차별 사실 입증 및 정당성의 책임을 모두 가해자가 지게 된다는 점, 간접 차별, 괴롭힘도 차별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10월의 법무부 입법예고안에서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즉 가해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별구제수단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제도, 차별시정기구의 제한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권 등도 삭제가 되어서 실효성이 매우 적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차별 금지 대상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과 같이 20개였습니다.

11월2일의 법제처 심사안은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차별 금지대상에서 삭제한 상태로 제출되게 됩니다.

대신 포괄적인 사회적 신분이라는 단어로 위 조항들을 차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성적지향이 위 조항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도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해야할 차별금지법이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NO DISCRIMINATION"

"게이가 된 것이 아니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2007년 11월 5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이 꾸려졌습니다. 긴급행동 웹사이트, www.lgbtact.org 에 방문하시어 많은 격려와 참여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소수자가 차별 받아도 마땅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까?

Zooface

세계적인 배낭여행자의 바이블, 론리 플래닛에는 국내 여행 책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여행자, 여성 여행자, 아이를 동반하는 여행자, 그리고 게이·레즈비언 여행자를 위한 섹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론리 플래닛 한국편의 게이·레즈비언 섹션에는 어떻게 실려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의 동성애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자를 인정한다기보다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자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이 안에 포함될까요? 직접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인권국가 대한민국

현 유엔 사무총장에 재임 중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등극하기까지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인권국가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브라질이 2003년에 제안한 성적 지향과 인권 결의안에 2005년 연명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관해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이 결의안에 연명하였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유해물이 아니라는 상식이 청소년위원회에

통하게 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도 조금이나마 바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법무부가 법제처로 넘긴 차별금지법안에서 성별의 개념을 변경하고(원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病歷),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본디 권고안에 있었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년간 준비해 왔던 법안이, 단 며칠 사이, 공청회 뒤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법이 바뀌고 있어도, 사회 인식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그 동안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자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여기는 일부 기독교 단체와 관련 교수들의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공청회 자료를 보면, ‘성적 지향 삭제 의견자’라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차별 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의견을 제시한 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법무부는 예시규정인 차별금지사유가 지나치게 망라되어 있다고 판단, 일곱 개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낸 자들이 잉크값과 종이값이 아까워서 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의미에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 방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도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에서, 이 상황

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예시 조항에 성적 지향 등도 포함되므로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도 아닌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법은 그 동안 투명 인간 취급 받아왔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차별하자는 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적 지향과 인권 결의안에 연명한 것이 인권 국가인 척하는 외교의 한 수단에 불과했나하고 의심해 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지니는 권리입니다. 그 앞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보고, 역겹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이 차별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차별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참고 문헌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7
-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연합, 1948.
-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2007.
-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 웹사이트. 2007

내 친구는 레즈비언이다

커밍아웃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여남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제관계, 형제자매관계, 불편한 관계. 사람과사람 회원 Rui와 그의 친구 N은 친구관계입니다. 친구 N은 평소에 Rui에 대해 생각했던 점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Rui는 그에 대해 답을 합니다.

내 친구는 레즈비언이다

N

내가 널 처음 본 건 우리 과 예비06학번을 위한 예비학교 날이었어. 생전 처음 듣는 교호를 외쳐달라는 선배들의 말에 너는 제일 먼저 씩씩하게 나갔었지. 그 때 노란 재킷을 입고 다홍빛 넥타이를 흔들면서 외치던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있는 너의 첫인상이야. 재 참 재밌는 애네~속으로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 짧은 머리와 남다른 의상을 보고선 저 아이 왠지 내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닮은 구석이 많다.....고도 느꼈었어. 혹시일까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사람은 처음 보고는 모르는 거니까.☺ 그 이후론 한동안 너는 눈에 띄지 않았었지, 그지? 흐흐.

그러다간 작년 10월쯤이었던가? 너와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었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려나? 흐흐. 난 뜻하진 않았지만 같이 지내면서, 네가 먼 곳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

니들을 알고 지낸다는 걸 알게 되었지. 간혹 네 친구들도 보게 되고. 아, 처음에 내가 가졌던 추측이 어찌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뭐 네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너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판단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사실 난 그런 거엔 관심이 없는 지도 몰라. 그때나 지금이나 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사진 좋아하고, 뭐 그런 활동적인 아이로 보여. 그거 좋은 거야☺. 이 아이가 만약 정말 남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싶은 때가 온다면 그 때 말을 하겠지, 나에게 거리를 두고 싶다면 말을 하지 않을 테고, 이 아이가 편한 대로 해주어야겠다. 나한테 말했을 때 나의 반응 어떨지 몰라 겁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잘못 짚은 거면.....괜한 생각인 거겠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너랑 룸메이트로 재밌게 살았던 거 같아. 흐흐. 나만 재밌었나?

이런 저런 추측이나 생각들을 잊어갈 즈음이었나, 늦은 밤 라면을 먹다가 네가 동아리 이야기를 하더라? 네가 동아리 엠티 때문에 과 엠티를 못 간다는 이야기였을 거야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동아리?냐고 물었고, 넌 머뭇거리다가 ‘○○○’같은 동아리라고 답했지. 그런데 영 이상하잖아? 그때 난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리둥절했지. ‘여러 종교 동시에 믿기가 이 아이 취향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너의 동아리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일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그 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던 내가 한 한마디가 아마 이거였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 이후에도 별 달라질 것은 없었어. 내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경험으로 인해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 일에 관심 없는 게 내 성격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


어. 단지 넌 내 친구였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룸메이트였고, 그래. 아, 변한 게 있다면 넌 그이후로 나에게 더 이상 너의 당시 그 분을 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언니라고 바꿔 말했다는 것? 그 정도일 거야. 아, 네 마음이 더 편안해 졌을 수도 있었겠다. 뭔가 감추고 산다는 건 긴장되고 힘든 일이잖아.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사실, 난 이성애,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실한 관점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동성애 성향의 친구들 이야기나 경험담을 접하고, 그리고……음……. 실제 목격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성향의 언니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기에 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거야. 세상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 중의 한 부류는 이성을, 또 하나는 동성을,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라고 생각해.

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난 나를 포함한 이성애 성향의 사람들은 이성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이성애 쪽으로 사회화 되어왔다고 봐. 그렇다면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은 뭔가 이성애자들과 다른 공통점이나 특징이 있는 걸까? 유전적으로든, 가정이나 주변 사회 환경이든, 경험이든……그저 정말 이성애를 느끼는 것처럼, 신체적, 본능적 반응? 정리는 잘 안되지만,☺;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앗……또 하나 있는데……허허. 지금까지 내가 접한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둘 다 여성임에도 그 안에 이성애 관계에서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내 경험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정말 그런 거라면 이성애와 다른 것은……무얼까?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 사실, 난 아직 어떠한 생각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들이야. 솔직하게 적으려

고 노력해봤는데 너에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 아마 난 앞으로도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일부분의 모습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사람 자체는 그 한 가지 모습으로는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늦은 밤에 쓰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써서 글이 정신이 없네☺; 문학성 발휘하겠다는 말 취소할게.....지송염. 네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난 너의 중심만을 볼 테니까 항상 지금처럼~.☺ 그럼 이만 나도 자야겠다. 안녕~.☺ 

내가 처음 본 너는 기억도 잘 나지를 않아. 사실 나는 예비대학 날 본 사람들 누구나 다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누구더러는 전도연 닮았다고 칭찬을 하고 누구더러는 다른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웬지 그런 거 보면 예비대학 날에든 언제든 나는 참 튀는 행동을 했었고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날 기억하느냐고 대뜸 묻잖아? 여하튼, 내가 처음 기억하는 너는 아마도 내 방 근처 지하철 출구에서의 너였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놀랐지. 그랬는데 네가 학교에서 밤을 새고 내 방에 씻으러 와도 되냐고 해서 의외였지만 그러라고 했어. 예나 지금이나 내 방은 만인에게 열려 있는 공용 여관방이잖니. 그 때 오더니 어느 날에는 또 하숙방에 대해서 묻고 어느 날에는 같이 지내게 되고, 뭐- 정말 신기하게도 급하게 친해진 것 같다. ㅋㅋㅋ 나, 방에서 너 기다리기도 하고 과자 하나도 기다렸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


○○○ 같은 동아리라, 아 진짜 기억난다. 나는 그 날 정말 고민 고민 했었거든. ○○○ 같은 동아리 엠티 때문에 총 엠티를 못 간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니? 그런데 다른 동아리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야. 항상 학생회관 동아리방에 간다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아이들이 무슨 동아리냐고 묻는데 ○○○ 동아리라고 하곤 했거든. 요즘은 XXX 자원봉사 동아리라고 하고. 애들 진짜 궁금해 하려는지도 몰라, ㅋㅋㅋ 여튼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웃긴 거 있지 -_-a ○○○라니; 그래서 너라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아, 그러니?’ 해 줄 것 같아서 확! 질러보자. 라고 해서 그냥 뜬금없이 레인보(Rainbow)동아리라고 해 벌였지.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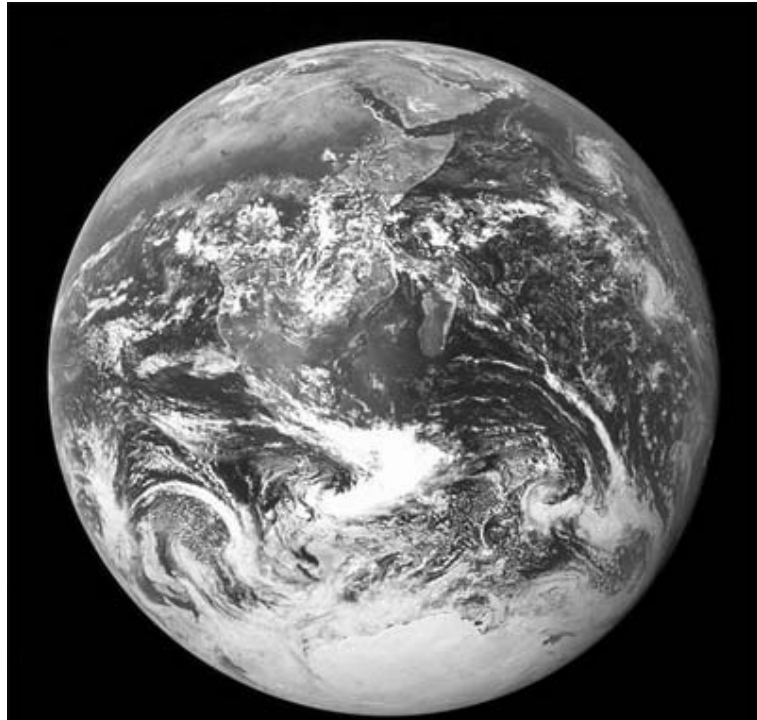
데, 야!!!!!! 나는 진짜 고민해서 말했는데 너는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 T-Ta 그게 뭐냐고 나한테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또 돌려서 말한다고 무지무지 힘들고. 그 날은 진짜 웃겼어. 네 친구들 이야기도 해 줬잖아. 네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하지는 않다고. 정말 마음의 맥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었지. ㅋㅋㅋ 그 뒤로 내 애인도 내 방에 자주 데리고 왔는데 네 눈치만큼은 안 봐도 돼서 진짜 즐거웠어. 게다가 다 같이 놀기도 했고 말이야. 혼토니 아리가토.

음, 다른 공통점이나 특징은 없는 게 아닐까? 어떤 동성애자들은 그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공감을 하는 말이 있어. [여자를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니 여자였다.] 음, 좋아하고 보니 여자였고 좋아하게 되는 사람도 여자고 여자한테 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었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되겠지? 하지만 나는 여자를 좋아하도록 사회화 되었다기보다는 거의 본능이었던 것 같아. 뭐랄까, 초등학교 2학년 때에도 여자아이한테 뽀뽀해서 결국 개가 충격 받아서 전학 갔던 걸 보면, 그 뒤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좀 자제(?)하며 살려고 했지.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걸 남은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었으니까.

아, 그리고 동성애 관계에서도 여자 역할과 남자 역할이 나뉘기도 하지. 그런데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과반수라는 거 아닐까? 사실 나는 좀 유동적인 편이거든. 그 때 그 때 좋아하는 사람 타입도 다르기도 하지만 좀 여성스러운 타입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뭐든 좀 챙겨주려고 하는 거고 조금은 더 남자 같은 타입을 좋아하게 되면 조금 맡기거나 기대보려고 하기도 하고.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지 저런 경향도 항상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항상 서로 여자라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저 사람이 강해 보여도 여자니까 약한 부분이 보일 때를 대비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하겠다든가, 내가 아무리 강해도 여자라는 걸 아니까 상대방이 배려를 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일종의 상호 배려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요즘에는 이성 커플도 서로 역할분담이 잘 되잖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더 아껴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역할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막 너무 남자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 취향이겠지? 나는 머리 긴 여자도 좋던데 ☺* <

ㅋㅋㅋ 나 자고 있는 동안에 글 쓴다고 고생했다. 고마워,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자, 내일 수업도 열심히 아자 아자!!! 좋은 꿈 꾸셈~ 



칠공주, 세계를 드잡다

사람과사람의 보석, 칠공주 중
호주, 성향, 구라파, 상항에 있는 네 명의
공주(?)들이 들려주는 무지개 마을 이야기

칠공주? The Seven Princesses

칠공주란 사람과사람에서 동갑내기로 구성된 게이 집단을 일컫는다. 본디 일곱 명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두 명이 늘어 아홉 명이 되었다. 이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매우 평화적이며, 온순하고, 배려심이 많다. 한국의 미를 전하고자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곳 이외에도 가나타, 영국, 애란 등으로 파견되었던 바 있다.

두 개의 얼굴이 필요치 않았던 도시

은빛까마귀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시드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명성 이외에도 게이들이 많은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세계적인 성소수자들의 축제 마디그라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많은 수의 게이들이 시드니에 거주한다. 물론 잠시 머무르고 있는 나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 게이들도 시드니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피해서 온 경우도 있고, 정말 동반자를 얻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주는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간 동거를 통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물론 몇 년 간의 동거를 증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젊은 게이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다 — 대부분의 게이들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싱글에 보통…… 외롭다.

시드니에서 게이는 발에 차이도룩 많다. 굳이 힐끔거리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무지갯빛 배지를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진장 여성스러운 화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남자에게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남자들의 시선이란 것은 — 역시나 이성애자들의 시선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시드니에서의 게이 생활이라. 시드니에는 마디그라 축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성소수자들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른바 시드니 게이들의 공식 집합소라 할 수 있겠는데, 특별한 다른 행사가 없을 때면 무지개 깃발이 1년 내내 거리를 따라 국경일의 태극기마냥 펄럭이고

있고,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바와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가본 곳은 그 중에서 단 네 군데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클럽에서 이성애자들 또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서울의 게이 커뮤니티 규모가 시드니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게이 인구수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네 대부분의 바와 술집들이 이성애자들의 출입이 불편한 데 비해 (물론 일부러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이곳은 전혀 거리끼지 않고 서로 어울린다. 어울리는 나이 또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서 이제 갓 클럽을 출입하는 나이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한 클럽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 동양인들이 더 많아 보이는 시드니 중심이라도 서양은 서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시드니에는 몇몇의 게이 전용 사우나와 많은 게이용 성인숍 등이 있고, 무료로 배포되는 성소수자들의 매거진도 3~4종류가 넘는다.

시드니에서 게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했던 것은 이성애자처럼 날 굳이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은 내가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데 너무 서툴러서 심지어는 한국에서조차 내가 게이란 것을 알아챈 눈치 빠른 친구들이 몇몇 있었지만 (과연 몇몇일까), 아무튼 여기에서 직장을 구하자마자 많은 직장 동료들이 게이인지 하도 물어봐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해 버렸다. 사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수많은 남자들이 게이라는 것을 그냥 밝히고 다니고, 아무도 그런 사실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견을 가지면 또 어떤가? 아예 무지하거나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꽤나 마음이 무거움을 느낀다. 시드니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몇몇 만났지만 가끔 그들이 게이에 대한 혐오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낼 때면 편하게 드러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사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사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게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한국인들에게만은 예외였다. 여전히, 홍석천 씨 이외의 게이는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건지 원……. 하지만 결코 한국인들만이 게이들에 대한 심한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 중에서도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게이에 대한 무지함이나 혐오감을 드러내곤 했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게이란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아마 알았겠지만, 아무튼.

마디그라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거대한 파티인 슬리즈볼은 시드니에서 지내는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9월 말에 열리는 슬리즈볼 축제는 마디그라 이전에 열리는 또 하나의 성소수자들의 축제이다. 내 친구는 이른바 ‘미친 서커스’ 라고 이 축제를 정의했다. 나도 물론 미친 서커스 마냥 옷을 입고 가고 싶었으나 과도한 입장료와 술값으로 의상비 지출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가벼운 진에 티셔츠 차림으로 파티에 갔다. 물론- 그것은 내 크나큰 실수였다! 포르노 잡지에 나올 법한 엉덩이 까진 가죽 팬티(만 입은!) 차림에, 각양각색의 동물 옷차림,(우리 리수 언니의 표범 옷차림 기억하는가? 아주 곰 같은 아저씨도 그런 옷을 입고 나선다) 그 외 각종 서커스 옷차림들이 파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같이 일하다 만난 브라질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을 누볐는데, 거대한 천막 안에서 수천 명이 어마어마한 음악과 레이저 쇼, 술과 약에 취해서 날이 환해질 때까지 춤을 추고 있다고나 할까. 파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계속되고, 아침 8시부터 다른 장소에서 다른 파티가 다시 열리며, 그 파티가 끝나면 다시 밤 10시부터 리커버리(Recovery) 파티라고 해서 게이들의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클럽들이 또 파티를 연다. 내 체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파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술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많은 밤들을 보내는 것은 사실 비극적인 일이다. 물론! 게이들이 유독 마약에 취약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마약은 접근하기도 쉽거니와 중독자들도 넘쳐난다. 호주에서 만난 몇몇 나의 친구들도 마약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간관계들을 모두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슬리즈볼 파티에서도 마약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춤을 즐긴다. 어찌 되었든 시드니의 모든 파티와 축제, 클럽 및 기타 모든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의 성적 정체성이 결코 비밀일 필요가 없는 곳, 다만 같은 한국인에게만은 아직도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참 아쉬웠다.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이중생활 따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게이로써 살아갈 수 있으려나? **사람**

나는 이십년이 넘는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도 따썩건 차건 집밥(!)을 먹었다. 그런 까닭에 ‘나만의 공간에서 (꽤 오랜 기간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나 할까. 물론 언젠가는 독립하여 살겠지만 1주일 후에 갈빗집 간다고 오늘 점심에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잖은가! 그러던 중 바다 건너 타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것은 곧 앞서 언급한 로망을 이룰 기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경험하는 것이 나의 싱가포르 행의 목적이었다. 언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가장 매력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문화의 척추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쿼어 라이프는 어떨까.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뜬금없이 웬 태형이냐고? 일단, 검색창에 ‘싱가포르 태형’을 쳐보자. 사다리꼴의 틀에 사람을 묶고 장기파손을 막기 위해 배에는 두터운 복대를 두른다. 착착 감기라고 소금물에 절여둔 회초리(보단 두꺼운 작대기?)를 사용한다. 친절하게도 태형 전문가와 함께 의사도 참관한다. 정신을 잃으면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충분한 회복의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남은만큼의 태형을 집행한다. 나무와 피부 사이의 마찰계수를 확인한 후의 상황은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태형이 왜 나오느냐고? 음……싱가포르는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표현도 우습지만 암튼 뭐 그렇게 되어있단다. 출국 며칠 전 나는 꿈을 꾸었다. 게이 퍼브에서 맥주를 마시다 그만 누군가와 손이 스치고 말았고(손만?), 앞뒤 썰 것도 없이 (경찰도 아닌) 그 소금에 절인 나무작대기를 들고 있는 산적 같은 아저씨(잇힝)가 날 잡아갔다. 다행히 사다리꼴의 틀에 묶이기 전에 깨어났지만 싱가포르 도착 후 상당기간까지 그 영상은 간간히 떠올라 날 괴롭히곤 했다.(과장 17% 추가)

지금 나는 어떠냐고? 다행히 잘 살고 있다. 싱가포르가 보수적이고 게이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오해처럼 게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다. 게이 신의 규모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딱 서울의 반 정도 규모? 뭐 인구도 절반이 채 안되니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나름 이 곳 생활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친구를 사귀었고, 주말이면 클럽에서 안 쓰던 관절을 써가며 춤을 춘다. 태형으로 인한 살점제거 다이어트를 한 게이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곳에서 이제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파악할 즈음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사람과 사람’과 같은 모임이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결과는 안타까웠다. 크나큰 아쉬움에 이웃학교도 알아보았지만 역시나……내가 조금 더 용기 있는 게이였다면 이 곳 모임의 설립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워낙 소인배라. 하하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싱가포르의 게이 신(Gay scene)은 주로 차이나타운 근처에 모여 있


다. 클럽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여러 게이 퍼브과 케이티브이(KTV)라 불리는 가라오케가 옹기종기 모여 공생하는 모양새다. 내가 자주 가는 클럽은 터부(Taboo)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포옹과 키스가 금지되어 그러한 이름이 붙었지만 누구도 지키는 것 같지는 않다. 팁 한 가지,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12시 이전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입장이다. 통상 금요일은 11불, 토요일은 20불의 입장료를 받는데 가난한 학생의 입장에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클럽에 함께 가곤 하는 친구에게 한국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말하니 싱가포르의 게이클럽(사장님도 물론.)은 ‘more gay friendly(더욱 친동성애자적)’이기 때문이란다. 쳇.

나는 토요일보다 금요일의 클럽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토요일은 초청DJ의 날이라 하여 매우 난해하고 엇박이 난무하는 사운드를 틀어 재끼곤 한다. 게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김연아 마냥 트리플 러츠을 밟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 또한 싱가포르의 클럽은 법에 의거(별게 다.....) 금요일은 3시(너무 이르다!), 토요일은 5시만 되면 음악의 중단과 함께 자세히 얼굴을 서로 쳐다볼 수 있도록 형광등이 환~히 들어온다. 즉 집에 가야할 시간. 모든 공휴일의 이브와 금요일에는 새벽 늦도록 심야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또한 내가 금요일을 선호하는 이유랄 수 있겠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클럽 중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탄생한, 세인트 제임스 파워 스테이션(Saint James Power Station)이라는 곳이 있다. 싱가포르의 남쪽 끝자락 하버 프론트(Harbour Front)에 위치한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럽이다. 다만 특이하게 매주 일요일 밤은 게이 나이트(Gay night)라 하여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게이들이 잔뜩 모여들곤 한다. 월요일마다 골골거리거나, 피병을 부리는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커피라도 권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자.

워낙 노는 이야기만 해서 조금 민망하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게이 들은 학업전선과 생업전선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색 안경은 벗어둬도 좋다. 며칠 전에는 친구의 친구가 일원이라는 싱가포르 유일의 남성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왔다. 뒤편이에 참석하지는 못 했지만 뒤편이 장소를 보아하니 이 역시 예사 합창단은 아니었다. 함께하고 싶다 메일을 보냈더니 1월에 오디션이 있으니 그 때 보잔다.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귀가 시간이 늦어도 괜찮다는 점이 좋고, 음식 값이 싼 것이 좋다.

방에 들어서면 반겨주는 이가 없어 가끔 외롭고, 느끼한 음식이 물 리기도 한다.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인지라 조금만 마음을 크게 터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가락 두드리며 글을 쓸 만큼 특별한 곳도 아니다. 싱가포르와 서울의 생활을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게이로서의 생활과 그 상대편의 생활을 비교해도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꼭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당신이 존재하던지 있는 그대로 행복하란 말이다! 끝!

참고로 이 글에는 내 지인이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88가지 단서가 들어있다. 만약 그게 나라는 확신이 든다면 밥이나 사주오! 

유럽에서 동성애 사는(?) 사람들

휘버

밤 새 얼마나 뒤척이고 잤는지 베게는 바닥에 뒹굴고 있고, 이불에 그려있는 그림은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아홉 시, 머리맡의 생수병을 잡아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밤 동안 일시 중단하고 있던 생활이 다시 시작됨을 느낍니다. 수업 시간표를 훑어보고 인터넷으로 밤사이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 하는데, ‘지구촌 LGBT의 생활을 주제로 글을 한 편 쓰라!’는 메시지가 와있습니다. 송신인의 이름만 보고 반가운 마음에 앞 뒤 생각 없이 무조건 긍정의 대답을 하고 ‘회신’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 그리곤 후회와 고민에 빠집니다. ‘지구촌 LGBT의 생활이라……?’

저는 지금 유럽 대륙의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분류가 무색할 정도로 작고 조용한 곳입니다. 이곳에 왜 왔냐고요? 그냥 ‘유학생’이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번잡스러운 대학생활과 복잡한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곳에 와서 익명의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심각한 고민은커녕 의사소통도 잘 못하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덧붙여 선진국의 정착된(?) 동성애 문화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한 달 정도 지나 차츰 자리를 잡아갈 무렵, 론리 플래닛 유럽편을 뒤적이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게이/레즈비언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정보’를 봤습니다. 그리곤 거리 이름과 주소를 머릿속에 외우고 어느 주말저녁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이니가 뭔가 다르고 더 신나고 자극적이고 재미있겠지’라는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

다.

차마 어딘지 사람들에게 물어 보지는 못하겠고, 발품을 팔아 헤맨 끝에 그곳을 찾아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이바라고 하더군요. ‘게이바’라고 하면 왠지 여장남자가 무대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곳을 상상하시는 고대인 여러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곳이건 대부분의 게이바는 그냥 병맥주와 간단한 칵테일을 파는 우리 학교 앞의 수많은 공간들과 비슷합니다. 그냥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편하게 모여서 시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하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Hallo, Was wollen Sie bestellen ?’

‘Bier, bitte!’

맥주를 한 병 시켜놓고 바에 앉아 주변을 둘러 봤습니다. 홀은 넓지 않고, 20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검은색 작은 테이블 10개 정도가 있고, 중앙에 길게 늘어선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검은색과 오렌지색 섞인 유니폼을 입은 바텐더 세 명은 붉은 조명이 들어오는 양주 진열대를 배경으로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말보로 담배를 들고 이야기 중간에 가볍게 키스를 나누는 20대 초반의 여자 두 명이 앉아 있네요. 뒤 쪽 테이블에는 제 또래의 청년들이 떠들면서 바 쪽을 바라보고 있고, 생맥주 잔을 손에 잡은 채 뭔가 집중해서 이야기 하시는 아저씨들도 계십니다. 할아버지도 계셨고 아주머니도 계셨고 연령층의 분포가 다양했습니다.

오른쪽에 혼자 앉아 있던 제 또래에게 말을 걸었고, 의외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인 친구가 생겼고, 그 이후로도 그 친구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날은 그 친구 ‘로빈’과 함께 조용하게 이야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주말이라 걱정하고 나왔더니…… 뭐, 이래…… 동네 호프집도 아니고…….’

그 다음 번에도, 또 그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곳은 동네 호프집 분위기였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들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가고, 주말엔 좀 더 여유 있게 떠들다 가는 곳 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져간 기대감과 호기심은 전혀 충족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그 친구를 만날 때 나 무료한 저녁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그곳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곳은 ‘동성애자들의 쉼터’라는 것 입니다. 분명히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활성화된 게이바라고 매체에 소개가 되는 곳인데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게이 바로 소개 되는 곳을 떠올려보면 쉽게 대조가 됩니다. 이태원에 있는 그곳은 ‘20대 위주의 큰 규모의 클럽’ 이니까요. 물론 한국에도 이런 조용한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그럼 이 작고 조용한 바가 이 도시의 대표적인 장소로써 소개가 되는 것은, 이곳이 현지 동성애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편하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사회적 인식과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는 길고, 자리 잡은 문화 역시 좀 더 안정된 느낌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동성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재감’이 생겼으니까요.

이 조용한 유럽의 게이 바는 앞으로 제 모습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게 해줬습니다. ‘그들만으로도 안정적인 사회’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성애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우팅, 사회적 차별 이런 질문들에 부담감이 좀 덜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니,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갖는 생각과 편견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게이’라는 소재가 들어간 농담을 듣게 되어도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이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보면 웃기게 들리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격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경험보다 주입에 의한 것이니, 뭐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 뭔가 특별하고 신나는 동성애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좀 더 특별한 체험이 담긴 글을 적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인근 도시로 활동 반경을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휘버군의 지구촌 LGBT의 생활 편, 결론은 ‘이 동네 스머프들은 스머프 마을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라고 적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2007년 11월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채워나가고 싶은 건강한 젊은이 씬.



San Francisco, the Highly Capitalistic Gay Heaven

땅콩

"시드니 마디그라(Mardi Gras)축제¹⁾는 애프터-파티일 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뉴질랜드의 핑크플라이트(Pink Flight)를 타고 마디그라 축제가 열리는 2월 26일에 맞춰 시드니에 도착하세요! 공항에서 열리는 사전행사에서는 모든 분들께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Air New Zealand의 Pink Flight 홍보 캠페인, 2007년.



Sydney Mardi Gras
is the after-party.

Catch the Air New Zealand Pink Flight™ from San Francisco to Sydney on 26 February, just in time for Mardi Gras. A pre-party at the gate will give everyone a chance to get acquainted. For details, visit airnewzealand.com/pinkflight

AIR NEW ZEALAND

1.

여기서 만난 어느 한국인 게이의 말처럼,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을 택한 사람들은 한번쯤 자문해봐야 될지도 모른다. 자가용이 없어도 편리한 극단의 도시 뉴욕도 아니요, 학구열로 가득 찬 보스턴도 아니요, 거대한 한국인 커뮤니티 덕분에 편리한 로스앤젤레스도 아니요, 왜 하필 안개 잔뜩 낀 코팍지 만한 도시를 선택했느냐고. (너 게이이지? -.-)

1) Mardi-Gras. 매년 3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게이 스트리트 축제.

2.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늙은 도시야. 아니 늙어가고 있는 도시지. 전 인구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니까.”

“왜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게이인 걸.²⁾ 대체 아이를 낳아야 말이지.”

혹시나 여기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은 당신. 어서 짐 싸라.

3.

대부분의 이방인 게이들에게 이곳은 꿈의 도시와 동격으로 간주되곤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작은 신(Scene)을 가지고 있는 카스트로³⁾ 거리(당신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규모를 반으로 줄이면 아마 그보다 조금 작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시를 습격하는 거친 바람과 안개, 도시를 가득 메운 아시안 생활인들을 마주치다보면 여기가 과연 내가 기대했던 게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렇게 땅을 쳤던 나의 기대는 현지 생활 두 달을 갓 넘긴 지금 조금씩 서서히 다시 상승하는 중이다. 다시 말해, 게이 컬처의 고향(정말?)으로서 샌프란시스코의 매력을 깨닫기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두 달이 짧은 시간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겨우 뉴욕에 30일 있어보고 책 쓴 업정화보단 낫지 않은가. 아님 말고.

4.

지하철 카스트로 역에 내려서 하비 밀크⁴⁾ 플라자라는 이름의 역 로

2)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 시민의 20%가 게이라고 한다. Tanner, Adam (April 7, 2006). San Francisco may be the World's Gayest City - Report. Scotsman. Retrieved on September 4, 2006.

3) Castro.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 인구, 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4) Harvey Milk(1930~1978) 1978년에 커밍아웃한 게이로는 최초로 시 의원에 당선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게이 인권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손꼽힌다.

비를 지나 그 위로 우뚝 솟은 깃대에 장엄하게 휘날리는 대형 무지개 깃발을 보면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해올 지도 모른다. 손잡고 어울려 다니는 동성 커플들 혹은 게이더⁵⁾에 걸리는 메이비게이(may-be-gay)들은 거리의 홈리스들만큼 흔하며, 차이나타운과 미션 디스트릭트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동성 간의 다툼 행각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내가 처음 자리 잡은 10월 한 달 동안 다운타운에서는 거리를 막고 벌어지는 (시 정부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는다.) 게이 스트리트 축제가 두 번이나 열렸다. 지루하고 숨 막히는 서울에 비하면 가히 천국이 아닌가. 하지만 나의 환상은 예상치 못한 홈스테이 아주머니의 한마디로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오~ 나 게이들 정말 좋아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전에 스트리트 축제 때 거리에 나가 핫도그를 판 적이 있었는데, 게이들은 다들 팁을 엄청나게 주더라니까.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이예요. 호호호.”

아, 그러시군요.

딱 일주일 후 나는 스스로 방을 구해 거처를 옮겼다.

5.

국내 게이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최근 게이 문화의 된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것은 이미 철 지난 이야깃거리일 뿐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환상을 잔뜩 지니고 있는 동안 나는 거대한 극단적 자본주의의 집합체, 미국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들먹이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최소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다고 여겨지는 퀴어 커뮤니티인 이곳에서

5) gaydar. 게이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종의 속어. gay+radar.

퀴어 문화와 자본주의는 정확히 함께 맞물리며 굴러가고 있다.

이곳에서 퀴어들, 특히 게이들은 잘 산다. 혹은 평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게이들이 커뮤니티에 나온다. 게이들을 타깃으로 한 명품 브랜드의 그럴 듯한 광고 캠페인은 일상화 되어 있고, 카스트로 주변의 집값은 미국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최고 축에 속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과거의 게이들은 핍박받고 차별 당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곳의 화려한 게이 인권운동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것은 돈의 힘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마침 게이들의 취향과 재능은 부가가치가 높았다. 그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번 게이들은 한 가지만 더 쟁취하면 이성애자들과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동성 커플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미국에서 뜨거운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일부 영향력 있는 게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면 닥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갈망 덕분에 논의가 성립되었다고 믿는 당신은 미국에 오기 전에 좀 더 뻔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이 미국에서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도시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물론 나도 몰랐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피부를 가지고 정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군 독특한 문화적 토양은 다행히도 백인 상류층 중심의 게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작용들을 만들어냈다. 샌프란시스코의 게이 단체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단체들보다도 인종-계층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돈 번 착한 백인 게이들이 기부를 하는 건지, 게이 시장의 잠재력을 이미 꿰뚫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재무 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

이다. 내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아시안 게이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여기서 종종 공짜 식사나 파티에 초대를 받기도 하는데, 영수증을 꼬박꼬박 체크하며 꾸준히 페니를 모으는 학생 신분인지라 자원봉사를 명목으로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다. 물론 게이 친구들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많이 생겼다.



6.

완벽하지는 않지만 혹은 어딘가 이가 빠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의 바퀴는 아무튼 굴러가고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완벽한 한국인인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규정짓기’와 ‘그룹짓기’에 이곳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너무 심각하게 재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상태에서 즐길 것. 마찬가지로 이곳 게이들은 아직 천국이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

하게 여기는 것 같다. 나에게 돈을 뜯어가기 위해 현란한 광고로 유혹하는 항공사의 작태가 얄밟긴 하지만, 게이 전용 전세기를 타고 마디그라에 도착하는 것은 정말이지 꿈만 같은 일 아닌가. 모두 심각해 할 필요까진 없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고민할 것이며, 내일은 ‘아무튼’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느낀 샌프란시스코의 ‘한 꺼풀 벗긴’ 이미지이며, 거만하게도 나는 이 이미지를 꽤 신뢰하고 있다.

단순히 회화실력 향상을 위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나오는 것이 결국은 돈지랄임을 깨달은 지금, 나는 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시의 분위기에 투신하기 위해 많은 게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싸돌아다니는 중이다. 거리를 메운 반라의 가죽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아스팔트의 열기를 느끼며, 자위행위 중인 벌거벗은 할아버지 옆에서 신나는 하우스 음악을 들었던 스트리트 축제의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선명한 무지갯빛이 스쳐갔다. 조금은 추하고 역겨우면서도, 뜨겁고 어딘가 아름다운. 한국인의 기‘갈’을 이곳에 당당히 펼치리. 물론 학원 숙제는 빼먹지 말고. **사람**

이해 : 나의 커밍아웃

우리는 오늘도 고민을 합니다. 이성애자인 척 쪽 살아가야하나, 아니면 나의 진짜 모습을 밝혀야하나. 그러다가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해봅니다. 결과는? 다행히 이 친구는 진짜 친구인가 봅니다. 아, 애는 당황해 하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이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지,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글/Luke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 그 때는 그것만큼 내게 절실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내가 좋아하던 녀석에게 물어봤다. 너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 죽긴 왜 죽어라면서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사실 난 그 녀석의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면서 몇 번이고 죽고 싶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갖은 방법을 다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요란하게 세상에 작별을 고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보니 이것도 나중에는 좀 악에 바쳤던 모양인지 그 녀석한테 보내는 유서라도 써놓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뭐, 그래봤자 서로 곤란한 일만 생길 뿐이니까. 나야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면 그뿐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 특히 그 녀석 — 은 정말 내가 원망스러울 테니까. 게이들이라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누구나 다 겪었을 것 같은 이런 뻘한 10대 시절을 굳이 끄집어낸 건 불쌍히, 가엽게 여기어 주시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녀석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시절에 헤매고 있었던 나를 지지해 준 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고마

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들인지 말하기 위해서다.

흔히들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간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며 몇 번이나 죽고 싶었던 나한테 있어서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이해 해준 그들은 내게 정말 각별한 친구들이다. 나랑 늘 어울려 다니며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던 친구들이 여섯 명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차근차근 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건 고 2때였나. 이제는 너무나 오래 된 일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때 한창 같은 반 녀석한테 빠져 있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 내 모습을 봤던 친구들은 다들 그런다. “그래,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 라고. 그냥 무턱대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말한 친구와, 뒤이어서 두 번째로 내가 말한 사람들 모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커밍아웃 한다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 무척 떨렸다. 두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수도 없이 나는 속으로 연습을 해보고 또 어떤 반응을 듣게 될까, 정말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걸 말해야 되나, 지금 말해버리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친구들을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은 꺼림칙했다. 늘 뭔가를 숨기고서 걸도는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는 내가 싫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 최소 두 시간은 걸리는 것 같다.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물론 허다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에 종종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주는 파장이 너무나 커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들은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묵묵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처음 이야기했던 두 친구도 그랬다.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그 두 사람 모두 내가 그저 단순히 고민을 하고 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 때문에 힘들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뒤에도 몇 번이나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했고 조금씩 그들이 이해해 주기 시작했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어려웠지, 그 다음은 수월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적당한 상황을 보아서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친해졌다고 싶은 때에만 했다. 얘기를 할 때도 뭐 갑자기 무턱대고 나 게이입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적 얘기부터 정말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랬다. “술 한 잔 걸치고 해야 될 이야기를 맨 정신으로 듣게 되네.” 라고. 정말 그렇다.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커밍아웃은 정말 상당한 정신적 활동이 되는 셈이니까. 나는 만날 하는 얘기를 또 하면서도 이번에는 괜찮을까, 친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서 소모가 심하고,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막상 정작 내 입에서 그 말이 직접 나와서 제대로 확인 사실을 하는 순간 꽤나 정신적 충격이 있나보다. 늘 할 때마다 정말 힘든 일이면서도 내 진심을 보인 뒤에 친구들의 반응을 보이면서 느끼는 안도감과 그들의 배려를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쁜 말을 들었던 적은 없다. 내가 죽을 생각까지 하게 됐던 그

때에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줬던 그들, 정말 뭐라고 달리 할 말도 없을 정도로 고맙다. 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친구는 그랬다. 그 동안 혼자서 너무 힘들었겠다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솔직해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사람과사람에 들어온 그 날은 정말 어디서 그렇게 용기를 얻었던 걸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뒤, 친구를 조용히 불렀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건물에서 나는 반쯤 목이 메어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또 내 나름의 도박을 시작했다. 이해받거나 혹은 멸시당하거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건 어쩌면 사람 복인지도 모르겠다. 하긴, 내 인복이 아니라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한 뒤에도 여전히 어울려 다니고 그러는 거겠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어쩌면 내 끝없는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일종의 욕구일 수도 있고. 물론 내 이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너도 여자만나고 그러다보면 변할 거야.” 라는 차가운 말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차분히 내 얘기를 듣고 이해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개들이 네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 아니냐고. 글썄, 어떻게 아무렇지 않았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만약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도 머리가 멍해질 것 같은 기분인데. 다만 그들은 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전에 좀 더 오랜 시간을 내가 겪었을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본 뒤, 결국 나도 그 때까지 그들이 알아온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겠지. 늘 그래왔듯 친구로 지내던 ‘나’는 여전히 ‘나’인 상태이고, 그저 그들이 몰

랐던 부분이 하나 더 늘어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남들 앞에서 쓰고 있는 가면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거, 그게 친구 좋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난 지금도 내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와 다름없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러 다니고 떠들고 어울리며 지낸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예전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것. “야, 저기 봐봐, 저기 재 말이야. 그래, 저 남자에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사람**

커밍아웃, 커밍아웃 받아주기

퀴어가이드에서는 커밍아웃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사람과사람 회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와, 그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이성애자 친구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커밍아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www.queerkorea.org/queerguide 에서 진실한 커밍아웃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퀴어가이드는 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QPR자살예방연구소 인터뷰

네가 누구든, 정말 괜찮아

기획·편집/ 프란츠

인터뷰/ Zooface

>>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때는 올해 8월. 한국 QPR자살예방소⁶⁾와 고려대 학생상담 센터의 부탁으로 사람과사람 회원들과 저는 뜬금없이 수십 장짜리 우울증 검사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 솔직히 제 심정은 성소수자 집단을 자살예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 살짝 불쾌했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친구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었고 학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상담에 대한 선입견은 많이 가셨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게이라는 걸 밝히면 제대로 상담해 줄까? 갑자기 어린 시절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날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등등. 게다가 이런 고민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성소수자인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상담소 문을 못 두드리고 있다니…… 마음이 답답해 지더라구요.

6) QPR자살예방연구소(<http://www.qprkorea.co.kr>) QPR은 Question, Persuade, Refer 삼단계로 이루어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그.리.하.여.

아예 이번 퀴어 가이드에서는 한국 QPR 자살예방소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외로 한국 QPR 자살예방소 소장이신 육성필 박사님은 흔쾌하게 인터뷰를 수락해주셨습니다. 이 인터뷰가 아우팅이 두려워서, 혹은 상담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상담소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수자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사람(이하 ZF): QPR 자살예방소와 고려대 학생상담센터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필: 내가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고려대 학생상담센터에 자살예방 및 위기상담 연구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6월에는 QPR 자살예방소라고 바깥으로 독립을 해서 나온 거죠. 국내 QPR 관련 단체는 여기가 유일하고, 자격증도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받을 때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요?

ZF: 지금부터는 저희 모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모임에서도 고려대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 그 때마다 느끼는 게 자기 성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상담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담사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육성필: 필수적이예요. 남들과 다른 성정체감(gender identity)나 바이섹슈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사회적 평가 — 스티그마(낙인)라고 해요 — 때문에 밝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성정체감이 그 사람

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는 예를 들어 ‘나는 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ZF: 그러면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지침이 국내에 있습니까?

육성필: 그것까진 없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정도예요. 거기에 단서는 있죠. 내담자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위험성에 처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직 상담자들 쪽에서도 성정체감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담자들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하나요? 혹시 ‘정신병자’로 보지는 않나요?

ZF: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신 의학회의 DSM-IV⁷⁾에서는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규정함에도 일부 상담가 분들은 거기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육성필: DSM-IV 라는 것은 문화적, 국가적, 사회정서에 따라 진단은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DSM-IV 이전에는 동성애를 성별 정체감 문제 (gender identity problem)로 봤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 선호 (sexual orientation)로 보고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제3의 성선호도라고 보죠.

7)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n Mental Disorders) : 미국심리학계의 공식적인 정신이상에 관한 진단체계. 자의적인 진단오류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DSM-5까지 개발되었다. 동성애는 1973년 정신이상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ZF: 지금 말씀하신 성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육성필: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 아니면 사랑을 나누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전통적 관점은 이성을 통해서 에로틱한 관계를 맺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이면서 남자. 바이섹슈얼도 있고. (성선호는) 그 사람의 성생활 패턴이라는 거예요.

ZF: 그럼 성소수자가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육성필: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생활의 어려움을 봐 주는 거죠. 동성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 선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온 단 말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소수자로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내담자가 감내할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힘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ZF: 얼마 전 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케이블 티브이와 인터뷰를 했는데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로선 의아했던 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얘기를 꺼내시더라구요.

육성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역동, 생물학적인 원인, 학습, 양육환경 등 어느 하나로 동성애를 설명할 순 없어요.⁸⁾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정신역동의 입장에서 여자 형제가 많은 가운데서 컸다거나 남성으

8) 모든 심리학자들이 단일한 시각으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크게 봐서 대략 7개의 주요한 시각이 심리학에 있는데, 프로이트가 주창한 정신역동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운운하면서 동성애의 원인을 설명한다 해도 심각하게 어린 시절을 곱씹을 필요는 없다.

로서 동일시할 모델이 없었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하나로만 성선호에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할 순 없어요.

ZF: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쾌감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대개의 성소수자들이 예를 들어 ‘너는 여자 형제가 많아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해서 큰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필: 많은 경우에 원인분석을 하려고 들어요.⁹⁾ 그런데 나는 동성애를 현상학적으로 봐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지, 원인을 알아서 어떡할 거예요? 난 이미 그렇고 살아왔는데. 그럼 이 모습을 가지고 살 경우 닥칠 일들,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잡아주는 게 상담자가 할 일이죠. 흔히들 말하면 밑으로 들어가면 — 원인을 밝히면 —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원인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ZF: 최근에 국내에도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치료소 이런 데가 있고 거기서는 치료가 된 경우가 수천 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육성필: 동성애 치료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동성애를 고쳤다는 게 아니라.

9) 사실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 뒤에는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앨버트 물러 총장(켄터키 주 남침례신학대)은 최근 동성애의 생리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이를 태아 시절부터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DNA 구조를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왓슨은 “뱃속의 태아가 동성애자로 판명된다면 산모에게 낙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ZF: 근데 그 분들은 익스게이(ex-gay)¹⁰⁾라고 해서 전에는 게이였는데 지금은 게이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동성애가 이슈화 되다보니까 일부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교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도……11)

육성필: 그거는 기독교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모르겠어요. 난 그 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방식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자기 성향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적절하게 도와주는 게 치유자의 몫이지…… 그걸 뭐 이성애자로 바꿔주는 게 (치료자의 몫은 아니죠.)

ZF: 그러면 개인의 의지와상담사의 지원이 있으면 성적지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육성필: 아닐 것 같아 나는. 그건 어차피 개인이 가진 선호인데 그거

10)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성적지향을 바꾼 사람. 기독교계 보수주의 단체들은 ex-gay들을 앞세워 동성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동성애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하던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동성애 관계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는데, 1998년 ‘전(前) 동성애자’로 <뉴스위크 Newsweek>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존 포크(John Paulk)나 1976년 ‘전(前) 동성애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개리 쿠퍼(Gary Cooper), 마이클 뷔시(Michael Bussee) 역시 다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바 있다.

11) 우리나라에는 “웰스프링(www.wellspring.kr)”이라는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에서는 ‘동성애’를 ‘성중독’과 동일시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를 바꾸려 한다고 바뀔까? 난 어렵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동성애자들을 면담해보면 동성애자인 사실 자체가 괴롭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죠. 자기 동성애자라는 것에 스스로 만족스러운데 주변의 친구, 부모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려워하지 그 외의 측면에서는 동성애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요.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보다 우울증이나 자살에 더 취약한가요?

ZF: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동성애자인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살한 분들도 몇 분 알고 있고 우울증 때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통계 자료를 봐도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도가 이성애자 청소년에 비해 두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성소수자들의 자살 위험도가 높은 편인가요?

육성필: 미국은 청소년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 원인의 1, 2위를 다투는 게 성적체성 문제예요. 두 번째가 약물하고 범죄구요. 현재 우리나라도 문제가 만만치 않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봐요.

ZF: 그럼 국내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요?

육성필: 아직까지 국내에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성적체성에 대한 시각도 없죠.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성의 표현에 있어서는 많이 유사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학생 시기를 후기 청소년기이자 초기 성인기라고 보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아, 그리고 성적체성이예요. 미국 같은 경우엔 커밍아웃을 했을 때 문제가 되죠.¹²⁾ 그래서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12) 미국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hate crime)가 만연해 있다. 지난

괴로우니까 약물이나 술에 빠지는 경우도 있구요. 내가 있던 연구소에는 이런 청소년을 따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성소수자 그룹이 사실 굉장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집단이에요. 사회에서 백안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죠. 또 하나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 위험도가 47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는 이중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약물치료는 사실 참 어려워요. 부작용도 많고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자꾸 재발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면 함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석사논문 쓴 지도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성소수자 그룹도 학문의 대상이 되면 상담에 있어서도 특정한 그룹으로 편입되는 거니까. 어쨌든 연구결과는 성소수자 집단이 자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도 많고 그래요.

ZF: 사실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는 친구들만 보면 지금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괜찮은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우울하게 보낸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육성필: 동아리의 역할이 단지 성소수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찾아주는 데까지 가야한다고 봐요. 어차피 제 3의 성 선호를 평생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하게 가져가야 할 거구요.

ZF: 그럼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이성애자 친구라든가

1999년에 전국적으로 혐오범죄로 FBI에 보고된 사례는 총 7,876건이며 이중에 1,317건이 게이/레즈비언과 같은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대중문화에서 게이/레즈비언을 희화하는 분위기도 뿌리 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 특히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는요.

육성필: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가족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당신의 아이가 성소수자인데 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죠. 하지만 그런 준비 없이 펍 터뜨리잖아요? 그럼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다시 커밍아웃 한 쪽도 충격을 받구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 상담이 중요해요.

ZF: 한국 같은 경우엔 다른 나라와 달리 부모님들이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동성애자가 됐다는 식으로……

육성필: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의 원인론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는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유전자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면 아이가 힘들어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안 되고 있어요.

네가 누구든, 정말 괜찮아.

ZF: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집단이 자살 위험도가 높은 이유가 사회와 부대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결국 근본적으로 자살 위험에서 성소수자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육성필: 그럼요.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에이즈, 자살을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사

람들만 한다고 생각한단 말예요. 하지만 자살도 극히 정상인 사람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도 하고. 동성애자도 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 있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에이즈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생각, 문화,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자살은 소수의 사람이 할 거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 년에 11,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7,0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살은 이상한 사람만 할 거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치료를 받으러 나오지 못하는 거죠.

ZF: 일반 이성애자들을 보면 자기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소수자 친구들은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합니다.

육성필: 성정체성을 이성애자 친구들에 오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오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ZF: 이번에 논문 준비하시는 분을 시작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F: (인터뷰 후기) 성정체성이 자살, 우울증 등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은 바로 사회 인식 때문입니다. 교육, 사회화, 주변 사람들, 미디어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행위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인식, 사회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나가면서

육성필 박사님과 고려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의외로 많은 학우들이 성적체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성소수자라면—혹은 성소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롭다면—사람과사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을 곱씹으며 외로워했을 당신,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나와 성소수자인 당신, 혹은 이성애자인 당신까지도—어렸을 때부터 ‘비정상’이라는 소리를 받고 자랐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드(Pride)를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세상에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네가 누구든, 정말 괜찮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정말 정말 몇 번이라도 괜찮아. 

학교 모임에 대한 편견을 버려!

Rain Again

- 고대에 숨겨진 보갈, 평동들! 학교모임 나오세요. ★

처음 내가 모임에 발을 디뎠던 작년 여름이 생각난다. 입학하고 한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 과 동기들 사이에서 일반인척 살아가는 것에도 슬슬 지쳐가고 있었다.

학교에 모임이 있다는 걸 발견했으나, 왠지 학교 안에서 이쪽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꺼림칙하였고 한 이반 카페에 질문을 올렸다. "학교 모임들 어떤가요?" 그러나 댓글들은 주로 부정적이었다..... 물이 안 좋다, 아우팅 당하는 거다, 인권운동만 해야 되고 재미없다, 끼순이들만 있다는 등 -.-;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는 좀 달랐고, 못 다할 재밌는 일들도 많았으며, 모임에 나오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곳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있다!

1. 학교모임은 물이 안 좋을 것이다?

처음에 나는 학교 모임은 물이 안 좋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모임 사람들을 알아가며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킹카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이었다. 실제로 우리모임 A군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종로 이반 술집에 갈 때마다 대시를 받아 옆에 같이 있는 내

가 다 지켜올 정도다. B군은 지난주에도 이태원에서 재벌 킹카에게 팔렸으나 늘 있는 일이라며 귀찮아하였다. 또 다른 C양은 귀여운 눈웃음으로 정작 본인은 관심 없는 일반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아무튼 학교 모임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다양한 식이 구비되어 있다. 물론 사람들이 매번 이태원/홍대 클럽가거나 번개 나갈 때 마냥 치장하고 만나진 않는다. 다들 평범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밥을 먹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열람실에서 공부에 쫓겨 매우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보게 된다. 덕분에 더욱 친해지기도 하고. 외모를 떠나 한명 한명 친해지면서 사람들이 매력덩어리 라는 걸 알게 되는 건 큰 즐거움이다.

아 또 하나. 만약 정작 당신이 킹카라면 모임에 나오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 인기녀/인기남이 될 수 있고 인기인이 되면 온갖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모임에 나가면 아우팅 당할 것이다?

모임을 나오기 전에 내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바로 아우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임 12년 역사상 큰 문제는 없었다. 이는 회원들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나는 게이/레즈비언 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위험하지가 않더라. 오히려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배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의 미래에 대하여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모임 선배들로부터, '일반들 사이에서 티 안내는 법', '일반놀이 하는 법', '무지한 일반들의 실언을 웃으면서 넘기는

방법’ 등과 같은 자기방어를 위한 실용적인 지식도 배울 수 있었고, 아우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다!

3. 관심 없는데 인권운동만 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다?

뜻있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시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 모임 회원들의 대부분이 인권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인권이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부터가 하루하루 내 앞가림하기 바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우리 모임에서 주로 하는 것은 모여서 밥 먹기, 술 마시기, 커피마시며 수다 떨기, 등의 소소한 일상이다. 종로, 이태원, 홍대 등의 술집이나 클럽에도 놀러간다. 방학 중에는 MT가서 정말 재밌는 추억도 만들고 온다.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학교 모임들과 조인트 술자리나 화려한 연합 행사를 갖고 뒤집어지게 놀기도 한다. 각 학교의 분위기와 킹카들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자리인지라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열심히 나오더라.

4. 다른 동아리 활동이 뺏아서 병행하기 힘들 것이다?

이건 비밀인데 사실 우리 모임 회원들 중에 다른 동아리나 과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병행하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그만큼 어떤 강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모여서 술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노는 것. 그것이 우리모임이 하는 것이다.

5. 끼순이들만 있을 것 같다.

모임에 나오기 전 어느 카페에서 누가 학교모임은 끼순이들 집합소라고 써놓은 댓글을 보았다. 학교모임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이 증폭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웬걸, 만나고보니 모임 사람들은 너무나 일반스럽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오히려 난 내가 끼순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

6. 나이가 많아서 신입회원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모임 성격상 1학년 입학 후 바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오히려 적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졸업을 앞두신 분, 졸업하고 대학원에 계시는 분 등, 다양한 학번과 나이의 사람들이 신입회원으로 들어오고 계신다. 작년 말에 들어온 이과대 01학번 A님, 올해에 들어온 법과대 02학번 B님, 정경대 03학번 C님 모두 즐겁게 모임에 나오고 있다.

7. (L의 경우,) 여자회원이 적어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실제로 모임 초기에는 여성회원들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여자분들 끼리의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모임 G들이 대부분 L들을 좋아하며, 오히려 L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더욱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L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모임 G들은 스트레이트 남성들보다 백배는 편하다고 한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L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L과 G는, 아무런 사심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뭔가 특별한 편한 관계라고 한다. L과 G와의 우정은 스트레이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경험해보자!

8. 사발식, FM등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싫다.

이런 거 전혀 없다. 선후배간의 관계는 심하게(!) 자유로운 편이다.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나오라.

9.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사실이다. 그래 이상하다. 근데 당신도 좀……?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ㅋㅋ 그냥 같이 놀자.

이제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한건 아닌가 싶다. 물론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갈등도 있고, 정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래, 사실 맘 상한 적도 많고, 사람들에게서 질린 적도 있다.

그러나 이반들과의 부적거리는 관계로부터 잠시 쉬다가 사람들이 그리워져 돌아왔을 때, 다른 모임보다도 학교모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반겨주었다.

내 삶을 두 배는 더 재미있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준 이 사람들

을 놓치고 싶지가 않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건 당신의 선택. ^^ 

사람과사람의 사람 되기

사람과사람에서는 365일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소개와 연락처를 적어 queerkorea@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가끔 이메일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답장을 못 받으셨다면 몇 번이고 다시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독촉글 남겨주세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queerkorea.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 silly tree 님의 글입니다.

제 목 실리트리 집사의 프라이드 신앙 간증

작성자 the silly tree

작성일 2007/12/06

찬미 프라이드~!!

주폐형의 글에 답글을 달다가 생각이 꼬리를 물어 제가 사람과사람에 흘러들어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저의 성적지향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마음의 방향을 잡은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정확하게는 2002년도에 저의 pc에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반, gay, 동성애 등의 검색어를 국내외 포털사이트에 모두 입력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쪽쪽 쿨어 라이프(queer life)에 대한 활자정보, 영상정보들을 빨아들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발을 적시다가 2002년 하반기 우리 사람과 사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웹상에서 이루어진 성과(?)지요. ㅋ

하하하 아직도 회장이었던 땅콩을 처음 만나던 때가 생생해요.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정대후문에서 만났는데 ㅋ (땅콩아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났던 게이가 너란다 ㅋ)

그리고 종강파티였나 잘 생각 안 나는 자리가 몇 번 있었고 인권캠프(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도 갔었지요. 캠프에서는 우리학교 말고도 많은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저 좋다는 사람까지도 만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이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는 사실이 힘들어서 그 대시를 거절했지요.

그리고 갔던 스키장 엠티?! 내게 정말 이 모임에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2003년 초 바로 군대를 가게 되고 휴가를 나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었지만, 음..... 어색하더군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꼭 필요한데 사실 그럴만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에 자꾸 회의가 들고.....

그런 상태로 전역을 한 후 개인적으로나 보갈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드터 2005년 말 저는 노력하는 게이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ㅋ '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즐거운 퀴어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이에요 만나 보면 만나 볼수록 좋은 사람과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해준 거져~ ㅋㅋㅋㅋ

이러한 저의 거듭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음 글들을 소개할게요.

다음 글들은 제가 02년에 가입해서 06년 대표가 될 때까지 사람과 사람 내부 게시판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에요 ^^

2002/12/24 사이트 처음 가입한 무렵에 쓴 글

P2P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군대에 가게 되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가기 전까지 열심히 참여할게요~. 그럼 다음 활동계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쪽 발밑이 불안한 삶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든든한 바닥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004/2/18 휴가 나와서 쓴 글

오랜만이군요.

금방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부대복귀 하려고 하는 동기 녀석이 아직 안오네요....오늘 복귀거든요. 번민의 1년 동안 방황도 많았지만 이번 휴가 때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없는 것은 그대로네요 하하 그리고 글 몇개 읽었는데 여기서도 싸이질이 인기인듯.... 근데 저 기억하세요?

>> comments

정권이 :: 네...편지하세요 -.-

phaedrus :: 연락을 해 연락을!! 우린 방법이 없잖아!!!

2004/5/30 외박 나와서 쓴 글

지금 뒷풀이? 음 게시판에 글 남기는 것도 뽕쬐한데.... 찾아갔음 정말 이상했겠단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이놈의 소심함 누가 좀 안 가져가나? 먼저 연락 하라는 패드형의 말을 또 못 지켰어요. 게다가 바보짓 하나! 저번에 땅콩 군대 간줄 알았으면서 땅콩한테 문자 보냈어요. 심히 우울하군요. 얼른 전역하고 사람과 사람이 정말 편하게 느껴지도록 활동하고 싶네여. 일반친구들 사이에서 채울 수 없는 2%는 가슴 답답함 그리고 외로움.

p.s 땅콩이 **시 근무라는데 저도 **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있을 줄이야

>> comments

phaedrus :: 그냥 나 전화 하지 -.-;;

acorn :: 꼭 총회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호박 :: 그래 앞으로 휴가 나오면 연락해~! ^^

땅콩 :: 어머니!

감자 :: 엇.. 나도 파주에서 근무했는데.. 참, 생일 축하해~~

파란눈 :: 앗~ 나두 파주!! 생일 축하해요~ ㅋㅋ

acorn :: 생일이세요? 축하해요~^^

2005/3/8 말년 휴가 나와서 쓴 글

일요일에 말년휴가 나왔어요. 3월 17일에 복귀하여 3월 20일에 드디어 자유인이 되네요. 오늘 첫 수업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저녁때 어머니님이 이제

군대도 다녀왔으니 취업과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기분을 완전 망치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동네 피시방에 왔다가 지금 이 시간 까지 있네요. 널 09:00 수업 큰일이네.....한번 기분이 다운되더니 여러 가지 속 쓰린 일들이 몰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생각해야지요. 히~!

>> comments

호준 :: 전역축하해요!!!

호박 :: 와 시간 빠르네요 ^^ (물론 바보나무에게는 긴 시간이었겠지만) 전역 축하해요. 다음에 학교에서 봐요

파란눈 :: 전역할 때가 제일 좋더라.ㅋ

acorn :: 전역 축하해요!!학교에서 자주 뵈요~^^

Maiden :: 어서오세요~~

감자 :: 축하~~~

닉 :: 축하합니다. ^^

2005/4/18 전역 후 방황하던 시기에 쓴 글, 모임을 잠시 탈퇴하면서...

아주 아주 긴 글을 썼었더랬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예러가 나버렸어요. 최근 저의 근황과 흔들림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흔들린 제 마음. 여러분한테 변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어쩌면 작별인사일수도) 불안한 이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까요? 바이일까요? 아니면 어느 이반시티즌의 말대로 전 가짜 이반인 걸까요?

ps. 그렇게 길었던 글이 이렇게 단순해진걸 보니, 아까 그 많은 글자들은 변명이었나봐요.

>> comments

파란눈 :: 무엇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이누네코 :: 파란눈. 참 긍정적이고 어른스럽구나. 하긴 우린 이제 어른이지.....

파란눈 :: 다르게 표현하면 다분히 약삭빠른 양시론자라고도...-_-;;

닉 :: 현명한 판단과 결정 내리시기를..

acorn :: 한 마디로 하거나 타인의 입을 통하면 단순해지지만 당사자의 속은 끓고, 앓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해야 하지만 너무 하기 싫어서 안하지만 해야 하는...식의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황일 테니=ㅁ=;,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요.^^

Maiden :: 결국 인생은 다 스스로 사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 가는대로. 잘살면 되는 거죠-

호박 :: 마음 가는대로 잘살면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 그걸 잘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지만.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할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어흑..

hiemis :: 근데.. 바보나무는 대체 누구지? -.-a

파란눈 :: 곧 나오시겠지.^^

bonkure :: 맞아요 마음가는대로. 내 마음을 내가 종잡을 수 없긴 하지만..

2005/10/22 모임에 복귀하면서 쓴 글 ^^;

진득허니 살아야 하는데 ㅋ 워낙에 천성이 변덕스러운지라 정대후문 지나가는 땅콩이를 보았드랬어요. 아 전역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재가입을 잊고 있던 것도 기억나고 무신 사정인지 잠시 게시판이 옮겨졌었나봐요. 게시물들이 올라온 날짜의 틈을 보니 어쨌든 앞으론 자주자주 만나요~! 사실상 신입회원인 바보나무였습니당~!

>> comments

땅콩 :: 혁..!

파란눈 :: 옮겨진 게 아니라 잠시 먹통..-.-

2005/12/8 가이드 배포하는 날 쓴 글 (뭔가 사람과사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ㅋㅋ)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의 극찬을 받은 편집뿐만이 아니라 뽀대 나는 컬러 표지의 선명한 이미지 시험공부도 제쳐놓고 읽었을 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재미있는 내용! 아유~ 최고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비록 나르고 배포하는데 아조 짝끔 노력을 보탠 것뿐이지만 참 좋네요. 제가 필자로 참여했으면 훨씬 보람 있었을텐데 아쉬워요.

과도관에 배포를 하러 갔을 때 마침 열람실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루루 나와 당황해서 황급히 꽂아놓고 나왔는데 괜히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ㅋㅋㅋ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 없나 재차 확인한 것이 더 큰 이유였지만 서두 ㅋㅋㅋㅋ 그리고 음료수 하나 빼들고 다 먹을 동안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뭐 이런 거가 있어." 그러면서 막 가져다버리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ㅋ 안타깝게도 읽으려고 뽑은 사람도 없었지만ㅋ

>> comments

세이그람 :: 으아~~가이드 보고 싶어요^^

Zooface :: 모두 수고했어요... 별로 한 일도 없고... 오늘까지 나르느라고...정말 수고했습니다. 특히 대표라는 직함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노력한...밤송군...~~

땅콩 :: 우리 회장단이 존경스러웁. 정말이야. 정말이에염.

이누네코 :: 으썩.

이누네코 :: 고마워. 섬기간엔 ... 나 원래 암 것도 안하자는 주의라서... 배포에 신경을 못썼구나. 모두들 미안미안. 모두들 시험 잘보세요. -메이든의 타타타를 들으면서.... -

Maiden :: 시험기간에 마음을 비우는데 더없이 좋은 노래죠.....

파란눈 :: 정말 정말 후배님들 완전 수고하셨습니다.

hiemis :: ^^;; 그리고보니 난 the silly tree님을 한번도 못뵈듯. 후배님인 거 같은데.. 우리 같이 밥 먹어요..~

the silly tree :: ㅋ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밥은 좋아요~!!

2006/2/13 대표가 된 날 쓴 글 ^^

몇 자 적사옵니다

그래도 저를 모임을 맡아먹을 년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 년쯤 모임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리어요. 사실 작년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미모도 기갈도 부족한데다가 무엇보다 이 바닥(?)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있는 인맥도 빈약한 제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중요한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런지...

그저 저 개인으로서는 즐거운 게이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2006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지요. 그러니 불쌍한 이 몸 개성강한 이반들 사이에서 새카맣게 속 태우다가 종국에는 정 떼고 속세를 떠나 어느 이름 모를 절간의 비구니가 되는 그런 일만은 막아주소서. 부족하지만 부디 어여뻐 여겨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comments

Zooface :: 앞으로 일년 동안 파이팅~

M.J. :: 축하한다~잘 할 수 있을 거야~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으련만^^ㅋ

이누네코 :: 위대한 영도자... 실리트리...렬렬히 환영하는 바이오.

닉 :: 축하해요!!! ^^

팡콩 :: 원래 이런 거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너에게 실보다 득이 더 많으리라 확신해..

acorn :: 화잇힝!>口<

pumpkin :: 정말 축하한다 ^^

파란눈 ::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행복한 자리라고 감히 말할게. 부탁해요~

이렇게 대표가 되었습니다. ㅋㅋㅋ

저 글을 쓴 이후로 정말 옮기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ㅋㅋㅋ 너무너무 즐거웠고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정말 은혜 받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나날이 너무 기뻐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제가 사람과사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얻게 된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람과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고, 내가 디디어설 반석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찾고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모임에 나오세요 ^^

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회원분이 있다면 저 글들을 보세요 ㅋㅋ

그리고 꼭꼭꼭 사람과사람 속으로 다이빙하세요 ~~!!!!

여러분에게도 프라이드의 은혜가 일평생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What Friends Say 한마디로 사람과사람을 표현해봐~

- 아싸 1등!_- (제크)
- 대략순위권(?) (dolce)
- 난 절대로 김태희랑 결혼 안한다. (Marty)
- 네가 준 인연과 자신감이 참 고맙다. 오래 오래 친하게 지내자. (다시 시작)
- 나까지 스리섬 (fra@ile)
- 날 찾아줘서 고마운. (이누네코)
- 스스로의 미움과 외로움 안에 갇혀있지 않겠다. 사람 안에 갇히겠다. 말없이 내 손 잡 아준 당신들. 사랑합니다! 사람과사람. ^^ (번지)
- 프라이드의 은혜 받고 새삶을 살게 한 곳, 복되도다 사람과사람 (the silly tree)
- 언제나 대화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녀석 (오른쪽)
- 너 없었으면 내 대학생활이 어땠을까 ㅋㅋ 땡큐! (프란츠)
- 넌 정말 변덕스러워. (닉)
- 대학교 와서 딱 하나 건진 거 ㅋㅋ (LJ)
- 내가 여자라면 송승복을 취하겠어~!!! 이런 거는 쓰면 안되지? (김동영)
- 편안해졌어. 덕분에. (뇌사)
- 네가 아니었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Rain Again)
- 엄마 사실 토요일 밤에 팀플 하러 학교간 거 아니었어. (땅콩)
- 우리 '사람과사람'이 더욱 더 번창하길..!!ㅋ (행복하자)
- Everyone needs a room of their own. (Luke)
- 내 대학생활에 가장 큰 동반자 (Anygirl)
- 섹스 못하는 거만 빼면 일등 애인♡ (acorn)
- 야, 너 똑바로 안 해? (Zooface)
- 고마워, 덕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 (은빛까마귀)



무지개나라에서 태어나셨군요

Zooface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거의 한국, 고려에서 유래된 말이 많습니다. 서구에는 고려에서 유래된 이름이 많고, 한자 문화권은 한국을 자국 독음 방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한국도 고려도 아닌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에서는 우리나라를 솔롱고스(Солонгос)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무지개를 뜻하는 솔롱고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롱고스는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지요.


몽골인 친구에게 왜 이런 이름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어원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참 예쁜 말입니다. 무지개의 나라라니요. 동화 속에만 나오는 나라 같군요.

이 무지개는 사실 성소수자의 상징입니다. 주로 여섯 색깔 무지개가 쓰이는데,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한 데 모여 더 예뻐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모이는 업소나, 해외의 자긍심 가득한 성소수자의 집에는 어김없이 이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일까요? 아쉽게도, 아직 그

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는 돌팔매질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이유 없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인데 말이지요. 프리즌 브레이크의 석호필이 게이라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이야기일 뿐,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려 합니다. 아마 외국인과 한국인은 다른 종인가 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실 때, 우리 성소수자들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물론 당혹스러울 수 있지요. 똑같은 이성애 교육을 받아온 우리들도, 처음 우리 자신을 인정하려 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소수자가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들어내어, 소통하고 싶은 바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일반 학우들을 위한 소책자라는 명목으로 퀴어가이드 1호를 펴내었습니다. 그리고 칠 년 후인 지금, 퀴어가이드 7호가 나왔습니다. 부디 이번 책자가 당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성소수자가 함께할 수 있기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진정한 무지개의 나라가 되기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마음을 열겠습니다. 

QCG7

www.queerkorea.org